

바리스타 최지욱 씨

커피 맛에는 정답이 없다

글_이주연 기자 | 사진_박신우 기자

바리스타(Barista) 최지욱 COFFEA 대표는 ‘커피’에 인생을 건 사람이다. 바리스타 세계챔피언 대회에 한국 챔피언으로 두 차례나 출전한 그이지만 “커피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”이라고 겸손해 한다. 그는 “커피가 가질 수 있는 맛은 무궁무진하고, 맛에는 정답이 없다”고 말하지만, 그가 만드는 커피를 맛본 이들은 이 바리스타가 커피의 어떤 ‘노하우’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 하기 마련이다.

그는 커피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‘마니아’들을 위해 몇 권의 책을 추천했다. 그 중 첫 번째가 《Coffee》(여동완 지음 | 가각본). 그는 이 책이 일종의 “커피 종합 백과사전”이라고 설명했다.

“커피를 좋아하는 일반인뿐 아니라 커피 관련 일을 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. 주관적인 커피 예찬이 아닌 커피에 관한 교양 문화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충실한 것이 강점입니다. 대부분의 커피 관련서가 원서를 번역한 수준에 그친다면 이 책은 한국인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커피 서적입니다.”

바리스타가 좋은 원두의 선택부터 커피 머신의 활용까지 모두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 고객의 미각과 후각을 만족시키는 한 잔의 커피가 나오게 된다. 감각을 유지하고,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한 매일 같은 시음은 기본이다. 7년차 바리스타인 최 대표는 그래서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.

그가 추천한 또 다른 책 《스타벅스, 커피 한잔에 담긴 성공 신화》(하워드 슐츠 지음 | 홍순명 옮김 | 김영사)는 그가 바리스타로서 지내온 커피 사랑을 경영과 접목시키는 데 길잡이가 된 책이다.

“한 개의 소매점에서 출발해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가 되기까지 하워드 슐츠 회장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책입니다. 커피에 관한 깊은 애정은 물론이고 직원들을 함께 성장하

는 동료로 인식하는 그의 ‘감성경영’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. 자칫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원칙들을 자전적 경험으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강했습니다.”

커피를 음식이 아닌 문화로 만드는 사람, 그들이 바로 바리스타이다. 따라서 바리스타는 외국에 나가서도 그 나라의 커피 문화를 살피게 된다. 최 대표도 예외는 아니라 외국에 나가면 커피는 물론 관련 서적도 많이 사들이는 편이다. 그가 소장하고 있는 원서 중 특히 아끼는 책이 《The birth of coffee》(Daniel Lorenzetti | potter).

“사진작가인 남편이 사진을 찍고, 부인이 글을 쓴 사진집입니다. 남미의 커피 농장을 돌아다니며 화보 형식으로 커피의 탄생, 역사, 종류를 담았습니다. 마치 커피 향이 배어나오는 듯한 사진이 멋있고, 내용적으로도 충실한 커피 전문서입니다.”

스스로도 책 읽는 것을 즐겨하고, 커피에 관한 책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데 동의한 최 대표였지만 결국 이런 말로 인터뷰를 끝마쳤다.

“어떤 커피가 가장 좋은 것인가를 찾을 게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커피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.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많이 마셔야 합니다. 몸이 기억하는 커피가 진정한 ‘휴식’이 되는 좋은 커피입니다.” **☞**

